

### Ⅲ. 신라의 대외관계

1. 중국과의 관계
2. 왜국과의 관계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1. 중국과의 관계

##### 1) 조공의 의미와 대중국 교섭의 전개

동서고금을 통해서 하나의 국가가 단독으로 성립·발전된 나라는 없다. 언제나 주변 여러 나라와 끊임없는 교섭(대외관계)과 충돌(전쟁)을 거치면서 성장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대외관계는 단순히 주변사가 아니라 한국사 발전의 큰 동인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sup>1)</sup> 그러므로 신라의 대외관계를 대표하는 대중국 관계는 선진문물의 수용이라는 현실적 목적도 있지만, 중국적 세계질서 속으로의 편입은 물론 자아의 확인과정이라는 의도도 있었다.<sup>2)</sup>

고대사회에 있어서 대중국과의 관계는 朝貢을 의미한다.<sup>3)</sup> 원래 조공이란 중국의 전통적인 중화사상 또는 왕도사상의 대외적 표현으로서 그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進貢과 回賜라는 문물교환을 뜻하였다. 즉 선진문화의 수용과 그 부수적인 경제적 보상(무역)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sup>4)</sup> 이에 대해서 조공을 정치적 성격으로 파악하여 宗主·從屬國의 관계로 설명함으로써 삼국의 정치·문화적인 독창성 저해수단으로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sup>5)</sup> 그러나 이와 같

1) 申滢植, 〈統一新羅의 對外關係〉(《韓國史論》1 古代篇, 國史編纂委員會, 1977), 299쪽.

2) J. K. Fairbank(ed), *The Chinese World Order*(Harvard Univ. Press, New York, 1968), pp.276~288 참조.

3) 李春植, 〈朝貢의 起源과 意味〉(《中國學報》10, 서울; 中國學會, 1969), 6~11쪽 참조.

4) 金庠基, 〈古代의 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에 對하여〉(《東方文化交流史論攷》, 乙酉文化社, 1948), 4쪽.

5) 全海宗, 〈韓中朝貢關係考〉(《東洋史研究》1, 1966; 《韓中關係史研究》, 一潮閣, 1979, 56쪽).

은 대외관계에 대한 이해는 당대 한국사의 내적 발전과정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주요한 뜻이 있을 것이다.<sup>6)</sup> 무엇보다도 대중관계가 ‘明王愼德 四夷咸賓’<sup>7)</sup>이라는 왕도사상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아시아 세계질서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 공존과 자립의 의미를 간과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중국과의 관계는 신라의 정치적 발전과 관련이 있으므로 능동적인 문화수용의 견지에서 정치적 독립성과 외교적 자주성이 유지된 고전적 외교인 것이다.<sup>8)</sup>

그러나 조공관계로서 신라의 대중국관계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삼국 중 가장 늦었으며, 고구려의 안내로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신라가 처음으로 중국(前秦)과 교섭할 시기인 奈勿王(356~402) 때는 고구려의 廣開土王(391~413) 때여서 그 정치적 간섭을 받고 있어, 고구려 사신을 따라 당시 서역문물의 집합소인 長安에 갈 수 있었다.<sup>9)</sup>

내물왕 26년 왕이 衛頭를 전진에 보내 방물을 바쳤다. 苻堅이 위두에게 물기를 “그대의 말에 의하면 해동의 일이 옛과 같지 않으니 어찌된 까닭인가” 하니, 위두가 대답하기를 “역시 중국과 같이 시대가 바뀌면 명칭도 바뀌기 마련이니 어찌 옛날과 같으리오”라고 하였다(《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3).

이 내용은 신라가 내물왕 26년(381)에 처음으로 전진에 사신을 파견했음을 알려 준다. 그러나 이러한 단 1회의 조공사 파견이 곧 대외관계로서의 조공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라는 전진과의 교섭 이후 法興王 8년(521)의 梁나라와의 교섭까지 140여 년간 중국과 교섭이 없었으며, 그 후 眞興王 25년(564) 이후 陳나라와의 계속된 교섭까지 중국과의 관계가 없었다. 중국과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이른바 조공사가 계속적 또는 정기적으로 파견되면서 중국측으로부터 외형적인 冊封이 이루어져야 정상화되는 것이다.<sup>10)</sup> 이 때의 책봉은 의례적인 것이며, 하등의 정치적·외교적 구속

6) 徐榮洙, 〈三國과 南北朝交涉의 性格〉(《東洋學》 11, 檀國大, 1981), 149쪽.

7) 《書經》권 4, 周書.

8) 申滄植, 《新羅史》(梨大 出版部, 1985), 200~201쪽.

9) 申滄植, 〈新羅와 西域〉(《新羅文化》 8, 東國大, 1991), 121쪽.

10) 全海宗, 앞의 글, 11쪽.

력은 없었다. 따라서 장수왕이 北魏・燕・宋・南齊・팔나라와 동시에 중복된 외교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진흥왕이 北齊・陳에 동시에 조공사를 파견한 것이다.

6세기 중엽까지 신라의 대중교섭은 왜와의 관계 때문에 진전되기 어려웠다. 5세기 말까지 신라는 왜의 침입이라는 국가적 시련을 계속 겪었으므로<sup>11)</sup> 그 대비책이 시급하였다. 더구나 대중통로가 고구려(육로)와 백제(해로)에게 지배되고 있어서 신라는 국가적 고립에 직면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후일 신라의 한강 하류지역 진출은 백제・고구려의 연결을 차단하고, 한강 유역의 경제적 기반확보는 물론 대중통로의 개척이라는 의미가 컸다.<sup>12)</sup> 따라서 내물왕은 고구려의 군사력에 의존하기 위해 위두를 고구려를 통해 진진에 파견하였으며<sup>13)</sup> 實聖을 인질로 보냈던 것이다.<sup>14)</sup> 이듬해 신라의 고구려 접근에 대한 보복으로 왜가 침입하였다.

신라는 진흥왕 14년의 한강 하류유역 확보 이후 고구려와 백제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었던 赤山航路(황해 횡단항로)를 장악함으로써<sup>15)</sup> 진흥왕 25년 이후에 대중국 교섭의 주도권을 쥐 수 있게 되었다. 즉 陳나라와의 교섭에서 고구려가 6회 사절을 보내고 있으나 신라는 8회에 걸쳐 사신을 파견하여 보다 활발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隋나라에는 신라가 12회의 조공사를 파견하고 있어, 고구려의 21회보다는 훨씬 적었으나 백제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외교사절의 빈번한 파견은 국력의 신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11) 왜는 赫居世 8년(B.C. 50) 이후 炤知王 22년(500)까지 신라에 33회의 침입을 한 바 있었다. 특히 실성왕(402~417)・눌지왕(417~458), 소지왕(479~500) 때는 4회 그리고 자비왕(458~479) 때는 5회의 침입이 있었다. 특히 흘해왕 37년(346), 내물왕 38년(393), 실성왕 4년(405), 눌지왕 15년(431) 그리고 28년(444)에는 경주(金城)를 포위・공격하기도 하였다.

12) 申滢植, 〈新羅의 發展과 漢江〉(《韓國史研究》77, 1992), 45쪽.

13)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乙酉文化社, 1977), 39쪽.

14) Lien-Shen Yang, Hostages in Chinese History(Studies in Chinese Institutional History, 1960), pp.43~57.

梁起錫, 〈三國時代 人質의 性格에 對하여〉(《史學志》15, 檀國大, 1981), 39~66쪽.

15) 申滢植, 〈韓國古代의 西海交涉史〉(《國史館論叢》2, 國史編纂委員會, 1989; 《統一新羅史研究》, 三知院, 1990, 265쪽).

## 2) 수 이전의 중국과의 관계

신라는 지리적 격리성 때문에 중국과의 교섭은 삼국 중에서 가장 늦었다. 따라서 내물왕 26년(381)의 전진과의 외교 이후 법흥왕 8년(521)의 양나라의 교섭에 이르기까지 중국과의 외교적 접촉은 없었다. 그러나 위두의 귀국 이후 서역에 대한 초기 단계의 인식이 가능해졌을 것이며 實聖의 고구려 인질, 墨胡子の 전도, 그리고 正方과 滅垢此의 활동 등은<sup>16)</sup> 간접·직접으로 서역이나 중국과의 교섭 필요성을 고조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서해 직통항로의 개척 이전에는 入朝의 어려움으로 중국과는 직접관계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법흥왕 이후 신라의 국가적 팽창으로 백제, 고구려의 위협이 가속화되었으며 신라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신라는 대중국 교섭의 관문인 党項城 확보가 절실하였다. 당시 백제는 椒島(풍천)에서 적산으로 연결되는 서해 직통항로를 개발하여 남·북조와 활발히 교섭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신라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면서 대중접촉을 피하였으나 주로 승려들의 왕래를 통해 양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가) 진흥왕 10년(553) 봄에 양나라에서 사신과 함께 유학하던 覺德스님을 보내면서 불사리를 보내 왔다(《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나) 진흥왕 26년 9월에 陳나라에서 사신 劉思와 明觀스님을 보내어 예방게 하고 불경 1,700여 권을 보내 왔다(《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다) 진평왕 22년(600) 고승 圓光이 隋나라에 갔던 사절인 奈麻 諸文과 大舍 橫川을 따라 귀국하였다(《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이러한 기록에서 보듯이 승려들의 유학은 국가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사절왕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승려들은 외교사신의 역할을 한 것이다. 특히 원광이 乞師表에서 진술한 것을 보더라도 당시 승려들의 외교적 활동은 정치적 의미가 컸다.

16) 《海東高僧傳》권 1, 流通 1-1, 釋阿道 古記.  
申澄植, 앞의 글(1991), 121쪽.

진흥왕 14년(553)의 한강유역 확보는 신라의 중국관계에 있어서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다. 재위 25년에 北齊에 조공하여 책봉을 받은 이후 26년부터는 陳나라에 매년 입조함으로써 조공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그리하여 진흥왕(25년 이후) 때만도 북제에 3회, 진에 6회 사절을 파견하였으며, 진평왕 때에도 2회의 조공사가 진에 파견되었다. 이러한 교섭과정에서 중국에는 方物이 보내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측으로부터는 주로 佛經이 보내졌다. 그러나 고구려가 北魏·周·陳·북제 등 남북조의 여러 나라와 관계를 갖고 있음과는 달리, 신라는 진흥왕 때까지는 주로 남조인 진나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을 뿐이다.

國人の 추대로 왕이 된 진평왕은 신성한 가문을 복구하고 眞智系(무열계)의 도전에 대해 왕통의 정통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이 시기는 남북조의 분열이 수나라에 의해서 수습되었으며, 곧 이어 唐이 등장하던 때였다. 따라서 3국이 새로운 통일왕조에 대하여 접근을 피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쟁외교를 목도한 수나라는 대등한 거리를 두고 3국을 견제하였다.<sup>17)</sup> 수나라 등장(581) 이후에도 신라는 가장 늦게 교섭이 이루어졌다.<sup>18)</sup> 진평왕 16년(594)에 上開府樂浪郡公新羅王으로 책봉을 받은 것을 보면 590년대 초에 사절이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평왕이 왕권의 강화 내지는 신성화를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선 진평왕은 제도의 개혁을 통한 왕권강화를 시도하였다. 수나라와의 외교관계를 맺기 전인 재위 15년까지 位和府·船府·調府·乘府·領客府 등 5개의 중앙부처를 신설하여 中古期の 왕권강화를 적극 추진하였다.<sup>19)</sup> 무엇보다

17) 申澄植, 《韓國古代史의 新研究》(一潮閣, 1984), 313쪽.

18) 수나라와의 접촉은 백제가 제일 빨랐다. 威德王 28년(581)에 조공하고 上開府儀同三司帶方郡公이라고 책봉을 받았다. 고구려는 영양왕 원년(590)에 관계가 시작되었으며 신라는 진평왕 16년(594)에 조공관계가 성립되었다. 고구려는 양원왕 10년(554)의 大政亂과 13년의 干朱理의 모반사건 이후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평원왕 28년(586) 장안성으로의 遷都 등 국내문제가 복잡하였다. 따라서 진나라의 멸망사실을 같은 왕 32년에야 접하게 되었다.

19) 李基白, 〈稟主考〉(《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141쪽.

李晶淑, 〈新羅 眞平王代의 政治的 性格〉(《韓國史研究》 52, 1986), 19~22쪽.

金杜珍, 〈新羅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改革〉(《震檀學報》 69, 1990), 19~21쪽.

李明植, 〈新羅中古期の 王權強化過程〉(《歷史教育論集》 13·14, 1990), 325쪽.

다도 진평왕은 努里夫(상대등)와 金后稷(병부령) 등 친위세력을 중심으로 眞智系를 견제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강화시켰으며, 재위 16년 이후 적극적인 親隋政策을 추진하였다. 특히 智明·圓光·曇育·安訥·安弘 등 고승의 측면적 지원과 뒷받침으로 왕실의 신성한 권위를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백제·고구려의 침입에 따른 국가적 위기와 진지계의 도전에 직면하여 진지계와의 정치적 타협이 불가피하였으며,<sup>20)</sup> 진평왕 43년(621)에는 龍春(진지왕자, 김춘추 부친)을 內省의 私臣으로 임명하게 되었다. 결국 진평왕 후반기는 舒玄(김유신 부친)과 연결된 용춘의 지위가 강화되어 왕권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진평왕은 兵部丞을 겸직한 私臣에 대한 제도적 견제책으로 兵部大監(2인)과 侍衛府大監(6인)을 두는 한편 적극적인 왕권강화 수단으로서 親唐策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수나라와의 외교관계 속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入朝使의 형태나 지위, 그리고 자격 등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수나라가 단명으로 멸망했기 때문에 구체적 기록은 적지만 다음의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 (가) 진평왕 22년 고승 원광이 朝聘使인 奈麻 諸文과 大舍 橫川을 따라서 돌아왔다(《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 (나) 진평왕 24년 大奈麻 上軍을 사신으로 수나라에 보내고 方物을 바쳤다. 9월에 고승 智明이 入朝使 상군을 따라서 돌아왔다(《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 (다) 진평왕 26년 7월 대나마 萬世와 惠文 등을 수나라에 보냈다(《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 (라) 진평왕 27년 3월에 고승 曇育이 입조사인 惠文을 따라서 돌아왔다(《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 (마) 진평왕 33년 왕이 사신을 수나라에 보내서 請兵의 글을 바치니 수 양제가 이를 허락하였다(《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 (바) 진평왕 35년 7월에 수나라 사신 王世儀가 와서 皇龍寺에서 百高座를 베풀고 원광 등 법사를 맞아 불경의 설법이 있었다(《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20) 진평왕은 자신의 딸(天明)을 金龍春에게 出嫁시켜 김용춘계와 정치적 타협을 꾀하였다. 김용춘도 이러한 정략적 혼인을 통해 자신의 지위와 기반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상의 내용은 신라와 수나라와의 외교교섭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알기 쉽게 도표화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신라의 對隋사절

인 명	관 등	파 견 연 대	귀 국 연 대
諸 文	나 마		진평왕 22년(600)
橫 川	대 사		"
上 軍	대나마	진평왕 24년(602)	진평왕 24년(602)
萬 世	"	진평왕 26년(604)	
惠 文	"	"	진평왕 27년(605)

<표 1>에서 보면 신라의 사절은 대나마(10위)·나마(11위)·대사(12위) 등 중하위급 관등을 가진 자로서, 백제사절에 비하면 하위급 인물이 파견되었다.<sup>21)</sup>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것은 諸文과 橫川, 萬世와 惠文의 경우처럼 동시에 두 사람이 파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두 사람의 관등 차이로 보아 正·副使의 성격을 띤다고 하겠다. 그리고 체류기간은 비교적 짧았으며, 그들의 임무가 求法僧의 귀국알선과 請兵까지 맡고 있다. 당시 승려의 신분과 지적 수준에 따라 그들이 외교사절로서의 직능을 다했으리라 여겨진다.

<표 2> 신라의 구법승(隋 이전)

인 명	나라	출 국 연 대	귀 국 연 대	귀 국 방 법
覺 德	梁		진흥왕 10년(549)	梁나라 사신을 따라
明 觀	陳		진흥왕 26년(565)	陳나라 사신(劉思與)을 따라
智 明	"	진평왕 7년(585)	진평왕 24년(602)	신라 사신(上軍)을 따라
圓 光	"	진평왕 11년(589)	진평왕 22년(600)	신라 사신(諸文·橫川)을 따라
曇 育	隋	진평왕 18년(596)	진평왕 27년(605)	신라 사신(惠文)을 따라
安 含	"	진평왕 22년(600)	"	
安 弘	"		진평왕 42년(620)	
圓 安	"			

21) 고구려의 對隋使節의 인명은 나타나 있지 않으나, 백제의 경우에는 杆率(燕文進, 무왕 8년)·佐平(王孝隣, 무왕 8년) 등 고위층의 인물들이 파견되었다(申滢植, 『三國史記研究』, 一潮閣, 1981, 224쪽).



〈표 2〉에서와 같이 구법승들도 국가의 통제하에 출국·귀국하였으며, 대개 사신을 따라 돌아오고 있다. 이들은 당시의 중국문화뿐 아니라, 서역의 문화를 전달해 줌으로써 신라문화 개발에 기여하였을 것이다.<sup>22)</sup>

이 때를 전후하여 서역문화의 수용에 큰 역할을 한 장본인은 원광이다. 그는 진평왕 11년(589)에 해로로 陳(金陵)에 들어가 成實·涅槃·三論 등을 전수받았다.<sup>23)</sup> 그러나 그 해에 진이 멸망하자 수(장안)나라로 들어가 통일왕조의 새로운 문물과 그 곳의 서역문물을 섭렵하였다. 진흥왕 37년(576)에 安弘<sup>24)</sup>이 胡僧 毗摩羅 등과 귀국했다던가, 《海東高僧傳》에 安弘이 서역승(3인), 漢僧(2인)과 함께 돌아왔다는 사실<sup>25)</sup>로 미루어 보아 당시의 구법승들이 서역에 대한 광범한 지식을 가지고 돌아왔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6세기 후엽 이후 신라인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은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을 것이다.

### 3) 당과의 관계

신라와 당과의 외교관계는 진평왕 43년(621)에 시작되었다. 당이 건국한지 3년만의 일이다. 삼국은 당나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책을 쓰게 되었다. 즉 고려려는 麗隋戰爭 이후 포로교환과 대립관계 청산을 위해 榮留王 2년(619)에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백제는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武王 22년(621)에 조공사를 보냈다. 그러나 당에서는 삼국의 왕을 같은 해인 624년(영류왕 7년, 무왕 25년, 진평왕 46년)에 책봉함으로써 견제정책을 쓰고 있었다.

진평왕 43년 7월에 왕이 사신을 당나라에 파견하여 조공하고 방물을 바쳤다. 당 高祖가 친히 사신을 위로하고 通直散騎常侍인 庾文素를 보내서 조서와 병풍, 그리고 비단 300段을 보내 주었다(《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22) 신라의 구법승의 활동에 대해서는 權惠永의 〈三國時代의 新羅求法僧의 活動과 役割〉(《清溪史學》 4, 1987)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어 참고가 된다.

23) 《海東高僧傳》 권 2, 流通 1-2, 圓光.

24) 《三國史記》 권 4, 진흥왕 37년조의 ‘安弘法師入隋求法’이란 기록은 진흥왕 37년(576) 당시는 隋의 건국(581) 이전이므로 사실이 아니다. 《海東高僧傳》 권 2, 流通 1-2, 安弘조에는 안함과 安弘을 동일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25) 《海東高僧傳》 권 2, 流通 1-2.

위의 기록은 신라와 당과의 첫 접촉사실을 나타낸 것이다. 그 후 진평왕 54년(632)까지 12년간 8회에 걸쳐 사절이 파견되었으며, 善德王 16년간(632~647)에 10회, 眞德王 8년간(647~654)에도 9회, 그리고 武烈王 8년간(654~661)에도 6회, 文武王의 8년간(고구려 정벌까지)에도 3회 사절이 파견되었다. 다시 말하면 진평왕 43년에 국교가 열린 이래 고구려 멸망(668) 때까지 47년간에 37회 사절을 당나라에 보낸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표 3>에서 보듯이 신라가 대당외교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표 3> 삼국의 對唐朝貢 回數(통일전)

국 명	회 수	내 용
신 라	37	진평왕(9) · 선덕왕(10) · 진덕왕(9) · 무열왕(6) · 문무왕(3)
고 구 려	25	영류왕(15) · 보장왕(10)
백 제	22	무왕(15) · 의자왕(7)

이러한 신라와 당과의 관계는 수나라 이래 공식적인 절차(책봉)가 정례화되었다.<sup>26)</sup> 진평왕 16년 왕이 수나라로부터 上開府樂浪郡公新羅王이란 책봉을 받은 일은 있으나 수나라가 단명으로 끝났기 때문에 외교상으로 양국간의 공식관례가 이룩되지 못하였다. 그 후 진평왕 43년에 당나라와 교섭이 시작된 이래 왕이 교체된다는가 중국황제가 바뀌면 공식사절이 파견되어 형식상 책봉절차를 받게 되었다.

(가) 진평왕 45년 10월에 사신을 당에 보내 朝貢하였다.···46년 3월에 당나라 고조가 사신을 보내 왕을 柱國樂浪郡公新羅王으로 책봉하였다(《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나) 선덕여왕 원년(632) 12월 사신을 당에 보내 조공하였다.···4년 당나라에서 持節使를 보내 왕을 柱國樂浪郡公新羅王으로 책봉하고 父王의 봉작을 답습케 하였다(《三國史記》 권 5, 新羅本紀 5).

26) 고구려의 경우 大武神王 15년(32)에 光武帝(후한)로부터 王號를 회복한 이래, 고국원왕(연) · 장수왕(북위) · 양원왕(북제) · 영양왕(수) 등이 책봉을 받았다. 백제 역시 근초고왕(동진) · 무령왕(양) · 위덕왕(북제) 등이 책봉을 받았다. 그러나 신라는 북제로부터 진흥왕이 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이란 책봉 이외에는 남북조왕조에서 받은 일이 없다. 그래서 신라의 조공이 정례화 · 공식화된 것은 남북조 이후라 하겠다.

- (다) 진덕여왕 원년(647) 2월에…당태종이 持節使를 보내 전왕을 光祿大夫로 추증하고 이어 왕을 柱國樂浪郡王으로 책봉하였다. 7월에 당에 謝恩使를 보냈다.…8년 3월에 왕이 죽었다.…당 고종이 이를 듣고 永光門에서 애도식을 갖고 大常丞 張文收를 지절사로 보내 조위를 표하고 왕을 開府儀同三司로 추증하고 비단 3백 필을 보냈다(《三國史記》권 5, 新羅本紀 5).
- (라) 태종 무열왕 원년(654) 5월에…당나라는 지절사를 보내어 예를 갖추고 왕을 開府儀同三司新羅王으로 책봉하였다. 왕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사의를 표하였다(《三國史記》권 5, 新羅本紀 5).
- (마)文武왕 원년(661) 10월 29일에 왕이 당나라 사신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로 돌아왔다. 당나라 사신이 조위를 표하고 조칙으로 전왕께 제사를 올리고 여러 가지 비단 5백 필을 주었다.…2년 정월 당나라 사신이 객사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때에 왕을 開府儀同三司上柱國樂浪郡新羅王으로 봉하였다(《三國史記》권 6, 新羅本紀 6).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신라는 왕이 바뀌면 조공사를 파견하였으며, 당은 왕이 죽으면 弔慰使를 보내든가, 또는 새왕에게 冊封使를 보내 예례상 절차를 행하고 있었다. 신라측에서는 따로 謝恩使를 파견하였으며, 중국측에서는 황제의 신임장을 지닌 持節使를 보냈던 것이다. 이 때의 책봉은 정치적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관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중국측의 입장에서 보면 고구려가 漢의 玄菟郡 경내에서 건국되었으며 그 인연을 벗어날 수가 없었으며, 中原의 정권이 바뀔 때 해도 연속관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북방의 割據政權이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고구려는 조공이라는 「신하의 예」를 계속하였으며, 중원정권의 책봉을 받아 중원정권의 조직일원으로서 그를 대신하여 지역인민을 지배하는 형태로서 중국과의 연속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이다.<sup>27)</sup> 이러한 견해는 중국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封官加爵 恩信撫慰행위는 분명히 藩屬朝貢關係가 아닐 수 없다.<sup>28)</sup> 그러나 조공관계는 정통 중국정부와의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동시의 여러 나라와 並存的으로 존재하였으며, 통일왕조라고 신라정부에 정치적 구속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외형적이며 의례적이었고, 중국측의 책봉이

27) 李殿福·孫玉良, 《高句麗簡史》(姜仁求·金英洙 역, 三省出版社, 1990) 92~129쪽.

28) 楊昭全·韓俊光, 《中朝關係簡史》(瀋陽; 遼寧民族出版社, 1992), 36쪽.

없다고 왕권행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정치·문화대국인 중국과 공존질서를 통해 아시아의 국제관계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진평왕 43년(621) 이래 시작된 신라와 당과의 관계는 중국과 그 주변국가간에 존재하는 조공관계로서 다양한 문물의 교류와 우호 및 화평관계의 뜻을 지녔으나, 백제·고구려와의 대립과 정벌이라는 현실적 목적 때문에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다. 진평왕 후반기 이후 세력을 강화시킨 용춘과 서현계는 김춘추와 김유신의 결속 이후 강화된 신흥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백제·고구려의 침입에 따른 국가적 위기 속에서 선덕왕을 세워 자신들의 세력을 확립한 후<sup>29)</sup> 적극적인 친당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구려는 淵蓋蘇文의 정변으로 대당관계가 악화되자 道敎의 요청이나 宿衛提供 등 여러 가지 친당책을 추진하였으나 당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대립이 계속되었다.<sup>30)</sup> 또한 백제 역시 大耶城事件(선덕왕 11년, 의자왕 2년; 642)과 고구려·수전쟁(645) 때의 신라침공 등으로 신라와의 긴장이 격화됨으로써 동아정세는 혼미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에서는 선덕왕 16년(647)에 毗曇의 亂이 일어났다.<sup>31)</sup> 이 난은 신흥세력(김춘추·김유신)과 구귀족세력(비담·關川) 간의 권력쟁패전이었다. 이 난의 결과로 신흥세력은 구세력의 대표인 알천을 포섭하였고 진덕여왕을 즉위시킴으로써 무열계가

29) 申澄植, 〈武烈王系の 成立과 活動〉(앞의 책, 1984), 115쪽.

30) 申澄植, 〈羅唐交涉上에 나타난 宿衛의 性格〉(위의 책), 267쪽.

31) 毗曇의 亂에 대해서 井上秀雄은 ‘和白의 국왕에 대한 퇴위요구에 대하여 金庾信 등이 여왕을 옹립함으로써 발단된 것으로 보아 선덕왕즉이 일으킨 것’으로 풀이하였다(井上秀雄,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 440~441쪽). 이에 대해서 李基白은 비담 등 구귀족들의 ‘상대등 왕위추대운동’으로 보았으며(李基白, 앞의 책, 101쪽), 李基東은 ‘내물왕계 씨족회의의 의결인 선덕왕의 폐위 내지 비담의 국왕추대에 불만을 품은 가야출신 김유신이 선덕왕을 옹호함으로써 발단되었다’고 하였다(李基東,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84쪽). 그 외에 武田幸男, 〈新羅“毗曇의亂”の一視角〉(《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論文集》, 1985); 朱甫墩, 〈毗曇의 亂과 善德王代 政治運營〉(《李基白先生古稀記念 韓國史學論叢》上, 一潮閣, 1994); 鄭容淑, 〈新羅 善德王代の 政局動向과 毗曇의 亂〉(위의 책) 등이 있다. 주보돈은 선덕왕 사망 이전 진덕왕의 즉위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왕위계승을 목적으로 난을 일으켰다고 보았고, 정용숙은 선덕왕 사후 왕위에 오를 것을 확신한 비담 등이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김춘추와 김유신이 진덕왕을 옹립하고 왕궁을 장악한 것으로 추측하여 비담이 난을 일으켜 폐위코자 한 대상을 진덕왕이라고 보았다.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여기서 김춘추는 직접 입당하여 宿衛外交를 추진하였고,<sup>32)</sup> 金法敏은 진덕여왕이 지은 太平頌을 헌진함으로써 대당외교를 주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긴장된 교섭과정에서도 양국간에는 빈번하게 문물이 교류되었다. 백제나 고구려에 비해서<sup>33)</sup> 신라는 다양하지 못하였다.

(가) 진평왕 53년 7월…미녀 2명을 보냈다.…그러나 당은 사신과 함께 돌려 보냈다(《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나) 진덕왕 4년 6월…왕은 5언으로 된 太平頌을 비단에 짜넣어 金春秋의 아들 法敏을 시켜 당의 황제에게 바쳤다.…7년 11월…金總布를 바쳤다(《三國史記》권 5, 新羅本紀 5).

신라의 경우에 다만 특별히 제작된 태평송이나 금총포 등을 당에 보냈을 뿐이었다. 신라와 당 사이의 활발한 문물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8세기 이후이다. 따라서 당시 당에서 건너 온 물건도 그림병풍이나 비단 또는 서적 등에 불과하였다.

#### 4) 대당사행의 유형

신라가 당나라에 사절을 파견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조공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중국의 왕조가 교체되거나 황제가 바뀌면 보냈으며, 신라왕이 즉위하면 책봉을 위해서 보낸다. 대체로 신왕의 즉위 초 정월에 ‘遣使入唐朝貢’이나 ‘遣使入唐獻(貢)方物’이라 하여 조공과 동시에 방물(토산물)을 보냈다. 그러므로 조공이라는 외교절차에는 문물교환이 부수적으로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이 때 당은 책봉이라는 정치적 승인과 ‘賜物有差’라는 답례를 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측 답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빈약하다.

32) 申澄植, 〈新羅의 宿衛外交〉(앞의 책, 1984), 352~390쪽.

33) 고구려는 封域圖(영류왕 11년)·白金(보장왕 3년)·美女(보장왕 5년) 등이, 백제는 果下馬(무왕 22년)·明光鎧(무왕 27년)·鐵甲과 彫斧(무왕 38년)·金甲(무왕 40년) 등이 중국에 건너갔다. 그리고 당으로부터는 天尊像(영류왕 7년)·道德經(보장왕 2년)·錦袍와 綵帛(무왕 38년) 등이 들어왔다.

신라의 견당사의 이름은 진덕왕 이후에 나타난다. 이들은 당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주로 왕족이 선발되었는데<sup>34)</sup> 구체적 명단은 <표 4>와 같다.

<표 4> 신라의 견당사(통일전)

인명	관등	파견연대	사행목적	귀국후활동
邯帙許		진덕왕 2년(648)	조공	
金春秋	이찬	"	청병	무열왕으로 즉위
金文王	과진찬	"	숙위	무열왕 3년 재입당
金法敏	이찬	진덕왕 4년(650)	태평송 기증	문무왕으로 즉위
金仁問	과진찬	진덕왕 5년(651)	숙위	무열왕 7년, 문무왕 2년 재입당
天福 (弟監)		무열왕 7년(660)	전승보고	
汗恒世	대나마	문무왕 7년(667)	조공	
元器		문무왕 8년(668)	"	
淵淨土		"	"	

<표 4>에서 볼 때 신라의 견당사는 거의가 왕족이었고 관등도 波珍浪 이상의 고위관직자였다. 특히 고구려 유족인 연정토를 외교사절로 발탁한 것은 민족융합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주목할만 하다. 김춘추와 그 아들(法敏·文王·仁問) 등 무열계 가문의 외교활동에서 그들 가문의 세력강화와 함께 통일과정에서의 이들의 역할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조공사는 그 사행의 목적에 따라 몇 가지의 사절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일반 조공사는 새 왕의 등장에 따른 연례적인 사절이며, 그외 특별한 임무가 부여되지 않은 「朝貢—回賜」라는 관행을 뜻한다. 그러나 나당간에는 구체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띤 사절도 파견되었으니 謝恩使·宿衛·求法使·請兵使 등이 있었다.

(가) 진덕왕 원년…당태종이 持節使를 보내 진왕에게 光祿大夫를 추증하고 이어 왕을 柱國樂浪郡王으로 책봉하였다. 7월에 사신을 당으로 보내 謝恩을 표하였다(《三國史記》권 5, 新羅本紀 5).

(나) 무열왕 원년 5월…당이 지절사를 보내어 예를 갖추고 왕을 開府儀同三司新

34) 고구려의 경우는 桓雄(세자, 영류왕 23년), 任武(왕자, 보장왕 6년), 福男(태자, 보장왕 25년) 등 모두 왕자였고, 지위는 莫離支여서 외교사절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羅王으로 책봉했다. 이에 왕은 사신을 보내어 감사를 표하였다(《三國史記》 권 5, 新羅本紀 5).

이 두 기록은 신라가 당에 사은사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러한 사행은 당나라의 책봉이나 특별한 은전에 대한 答訪이었다.

다음으로 신라와 당과의 외교관계에서 특이한 것은 宿衛의 파견이다. 이것은 ‘夫四夷稱臣 納子爲質’<sup>35)</sup>이라는 표현과 같이 唐에 파견된 주변국가의 人質(質子)로 간주되어 왔다.<sup>36)</sup> 그러나 숙위는 인질과 달리 실제로 자신의 활동을 통하여 조공사·청병사·문물교류사의 역할뿐 아니라, 양국간의 정치·군사적 교량이 되었다.<sup>37)</sup> 따라서 숙위외교는 나당간의 외교관계에 중추적 역할을 다한 것이다.<sup>38)</sup>

- (가) 진덕왕 2년(648) 3월...이찬 김춘추와 그의 아들 문왕을 당나라에 보냈다. ...춘추가 황제께 아뢰기를 “제가 자식이 일곱이 있는데 황제 곁에서 숙위로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니 그 아들 文注(文王)와 大監 □□을 숙위케 하였다(《三國史記》 권 5, 新羅本紀 5).
- (나) 진덕왕 5년 2월...파진찬 김인문을 당나라에 가서 조공하고 이어 숙위로 머물게 하였다(《三國史記》 권 5, 新羅本紀 5).
- (다) 문무왕 6년(666) 4월...天存의 아들 漢林과 庾信의 아들 三光이 모두 나마의 관등으로 당에 들어가 숙위가 되었다. 왕은 백제가 평정됨에 따라 고구려를 멸하고자 당에 군사를 청하였다(《三國史記》 권 6, 新羅本紀 6).

이 글은 신라가 통일전에 당에 보낸 숙위에 대한 것이다. 숙위는 주변국가의 왕자로서 당 조정의 近臣(의장대)으로서 시위하며 머무는 外人宿衛로서

35) 《冊府元龜》 권 996, 外臣部 納質.

36) 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東洋文庫, 1954), 433쪽.

金庠基, 앞의 책, 9쪽.

楊昭全·韓俊光, 앞의 책, 83쪽.

37) 申澄植, 앞의 책(1984), 352~390쪽 참조.

38) 宿衛는 신라와 당 사이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서방의 吐谷渾·于闐國·鄯善國도 質子를 파견하였고(《舊唐書》 권 198, 列傳 148 및 《漢書》 권 96 上), 발해에서도 숙위를 보내고 있는 등(《冊府元龜》 권 974, 外臣部 褒異 1 및 권 996, 納質) 발해나 서역 제국과 당 사이에서도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출발된 것이지만,<sup>39)</sup> 그 내면적 성격은 단순한 조공사나 인질의 존재를 넘어 양국간의 외교사절로서 다양한 직능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시대의 필요에 따라 그 임무가 달라지고 있으나, 통일전에는 주로 請兵使로서 또는 백제·고구려 정벌의 副將(선봉장)의 역할을 하였다.<sup>40)</sup>

우선 김문왕은 진덕왕 2년(648)에 부친 김춘추를 따라 입당숙위하고 5년에는 김인문과 교대하였다.<sup>41)</sup> 그리고 김유신의 아들인 삼광은 문무왕 6년(666)에 숙위가 된 후, 8년 고구려 정벌 때 선봉의 副將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주로 청병사의 역할을 하였으며, 당제로부터 武將職의 관직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표 5>에서 보듯이 한두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있었다. 김삼광의 경우 그는 《삼국사기》新羅本紀에는 한림과 같이 나마로 되어 있으나, 列傳에 의하면 대아찬이었으며 한림은 그의 수행원으로 생각된다.<sup>42)</sup>

<표 5> 숙위와 그 수행원(통일전)

숙 위 명	관 등	수 행 원 명	관 등
김 문 왕	(과진찬)	□□대감	(급찬)~아찬
김 인 문	과진찬	유돈·중지	사찬·대나마
김 삼 광	대아찬	한림	나마

<표 6>에서와 같이 통일전 숙위는 김춘추의 두 아들인 김문왕과 김인문이 교대로 임명되었다가, 그 후 김유신의 아들이 임명되었다. 즉 숙위는 당대를 대표하던 세력자의 자제들이었기 때문에 청병사로서 또는 백제·고구려 정벌의 향도장이라는 군사적 활동을 통해 통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39) 卞麟錫, <唐宿衛制度에서 본 羅唐關係> (《史叢》 11, 1966), 50~66쪽.

40) 申澄植, 앞의 책(1984), 359~385쪽.

41) 김문왕과 김인문의 경우는 백제 정벌을 위한 나당간의 군사협조 상의 필요성에 서 중복된 숙위에 임명되었다. 진덕왕 5년(651)에 교대되었다가, 다시 무열왕 3년(656)에 교대되었으며, 같은 왕 5년에 문왕이 中侍가 되었으므로 다시 교대하였다. 그 후 김인문은 백제 정벌에 선봉장으로 참여하는 등 수차 양국을 왕래하였으며, 전후 22년간이나 당나라에 머물다가 唐京에서 죽었다.

42) 신형식, 앞의 책(1984), 361~362쪽.



〈표 6〉 신라의 숙위 일람표(통일전)

인 명	관 등	혈 통	파 건 연 대	귀 국 연 대	당 의 관 직	활 동 상
김문왕	파진찬	김춘추 3남	진덕왕 2년	진덕왕 5년	左武衛將軍	
김인문	"	" 2남	진덕왕 5년	무열왕 3년	左領軍衛將軍	
김문왕	"	" 3남	무열왕 3년	무열왕 5년		중시 역임
김인문	"	" 2남	무열왕 5년			백제정벌
김삼광	대아찬	김유신 장남	문무왕 6년	문무왕 8년	左武衛翊府中郎將	고구려정벌

한편 일반적인 조공사 외에 國學入學 요청이나 구법 등 특별한 목적을 띤 사절이 있었다. 즉 선덕왕 9년(640) 5월에 왕이 그 자제를 당에 보내 국학에 입학을 청한 경우나, 선덕왕 5년에 慈藏法師가 불법을 배우러 간 것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진덕왕 4년 6월 ‘告破百濟之衆’과 무열왕 7년 7월의 ‘遣弟監天福 露布於大唐’은 戰捷報告의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통일전 신라의 대당 관계에서는 사절의 역할에서 다양성이 찾아지지 않는다.

- (가) 선덕왕 11년 8월에 백제는 고구려와 합세하여 党項城을 빼앗아 당과의 통로를 끊으려 하였다. 이에 왕은 사신을 唐太宗에 보내어 급박한 사정을 알렸다.…겨울에 이찬 김춘추를 당에 보내어 군대를 요청하였다(《三國史記》 권 5, 新羅本紀 5).
- (나) 선덕왕 12년 9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서 글을 올리되 “고구려, 백제가 신의 나라를 능멸하니…원컨대 군대를 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하였다(《三國史記》 권 5, 新羅本紀 5).
- (다) 진덕왕 2년 겨울…김춘추와 그 아들 문왕을 당나라에 보냈다. 춘추가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만약 폐하께서 군대를 내어 흉악한 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저희 나라 인민들은 전부 포로가 되고 육·해로를 통해 조공할 방도가 없습니다” 하였다. 태종이 깊이 동감하고 군대지원을 허락하였다(《三國史記》 권 5, 新羅本紀 5).

이 내용은 통일전에 파견된 37회의 조공사 가운데 7차에 걸쳐 파견된 청병사에 대한 기록의 일부이다.<sup>43)</sup> 특히 김문왕·김인문·김삼광 등 숙위는 請

43) 이 외에도 ‘王遣使入唐求援’(무열왕 2년), ‘遣使入唐乞師’(같은 왕 6년) 그리고 ‘欲滅高句麗 請兵於唐’(문무왕 6년) 등의 기사가 보인다.

兵使로서 역할에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양국간에 정치·군사적 중요사항이 생기면 중개인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龍朔 원년(661) 고종이 인문에게 말하기를…“지금 고구려는 예맥과 함께 포악무도하여 事大之禮를 어겼으니 이는 善隣之義를 저버린 것이다. 짐은 군사를 일으켜 이를 정벌하고자 하니, 그대는 돌아가 국왕에게 이를 알리고 함께 군사를 내어 고구려를 정벌하자”고 하였다(《三國史記》권 44, 列傳 4, 金仁問).

이와 같이 신라의 대당외교는 긴급한 백제·고구려 정벌문제에 부딪쳐 청병사가 중심이 되었으며, 다양한 사절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sup>44)</sup> 다만 숙위외교를 통해 삼국통일의 외교적 관문이 열리게 되었으며, 통일 후 양국간의 친선관계가 이룩되면서 여러 가지의 외교사절이 교환되었다. 특히 통일 전 나당간의 외교에서 김춘추 가문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그 후 무열왕권 성립으로 새로운 외교상의 변화가 있게 된다.

〈申滢植〉

## 2. 왜국과의 관계

### 1) 시기 구분

통일 이전의 신라가 왜국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였는지에 관해 현재 정설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는 이 시기의 신라와 왜국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기본사료인 《三國史記》와 《日本書紀》의 사료적 한계 때문에, 이들 사서를 이용하여 양국관계를 복원하고자 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먼저 《삼국사기》를 살펴보면, 신라본기에 赫居世居西干 8년(B.C. 50)조부터 炤知麻立干 22년(500)조에 이르기까지 모두 54개조의 왜관계 기사가 보인다.

44) 신라가 청병사에 치중한 반면 백제와 고구려의 경우에는 비교적 다양한 사절의 형태가 보인다. 즉 告哀(무왕 42년), 進賀(영류왕 11년, 보장왕 15·25년), 謝罪(보장왕 5년, 의자왕 4년) 등의 사절이 있었다.

만, 이 《삼국사기》의 왜에 대해서는 한반도 거주설, 일본열도 거주설, 한반도 · 일본열도 거주설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열도 거주설의 경우도 왜왕권설 · 지방세력설 등이 존재하여,<sup>1)</sup> 신라본기에 보이는 왜관계 기사를 왜국의 왕권과의 관계를 말해 주는 기사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삼국사기》에는 6~7세기의 신라와 왜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일본서기》는 234개조의 신라관계 기사가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왜국과 신라와의 관계가 ‘神功皇后(진구코우고후)의 三韓征伐’과 신라의 항복으로 시작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일본서기》에서는 일관되게 왜국이 신라에 조공을 요구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데, 현재 신공황후의 삼한정벌을 사실로 인정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 ‘신공황후의 삼한정벌’ 기사는 7세기 말엽부터 8세기 초에 걸쳐 성립한 일본 율령국가 지배층의 대신라관을 반영한 것이므로, 《일본서기》의 신라관계 기사를 사료로 이용할 때에는 이러한 윤색된 기사에서 사실 관계만을 읽어 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점에 주의하여 신라와 왜국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때, 우선 전반적인 경향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4세기 후반 백제와의 국교가 성립한 이후 왜국은 백제멸망 때까지 일관하여 친백제정책을 취하였고, 그 결과 신라와 왜국의 관계도 백제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라와 왜국의 관계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시기별로 미묘한 변화를 겪는다. 즉 ① 4세기 말~5세기 초로, 백제 · 왜국과 고구려 · 신라라는 두 군사동맹체제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신라와 왜국이 적대하던 시기, ② 433년~5세기 말까지로 백제와 신라의 화친관계의 성립으로 신라와 왜국의 관계도 개선되었던 시기, ③ 6세기 전반 가야지역을 놓고 신라와 경쟁을 벌이던 백제가 왜국에 대한 문물전파라는 대외정책을 쓰면서 왜국이 원병을 파견하는 등 백제와의 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여 신라와 적대하던 시기, ④ 562년 대가야의 멸망 이후 6세기 말까지로, 대가야의 멸망으로 백제로 가는 교통로를 상실한 왜국이 고구려의 사신 파견을 계기로 신라의 양해를 받아내어 신

1) 田中俊明, <“三國史記”にみえる‘倭’關係記事について>(《歴史公論》77, 1982), 67~69쪽.

라 연안을 지나 백제로 가는 교통로를 확보하여 백제·신라와 교류하던 시기, ⑤ 수의 성립 이후 7세기 초에 왜국이 백제의 권유로 대수외교와 대고구려외교를 개시하면서 신라 연안을 지나 백제로 가는 교통로도 확보하여 백제·고구려·신라와 교류하던 시기, ⑥ 당의 성립 이후 623년~650년 신라가 왜국에 送使를 파견하여 대당관계를 매개하면서 왜국에 대해 적극적인 외교공세를 펼친 결과 왜국이 신라·고구려·백제에 대해 균형외교를 지향하던 시기, ⑦ 651년~663년의 시기로, 신라·당의 왜국에 대한 군사동맹 강요와 백제·고구려의 적극적 외교공세 속에서 왜국이 점차 백제·고구려 진영에 가담하게 되어 백제멸망 후에는 백제부흥 운동군에 대규모 원병까지 파견하게 되는 시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2) 4세기 후반~5세기 초 왜국과의 관계

먼저 신라와 왜국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삼국사기》에서는 脫解 3년(59) 왜국이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양국의 외교관계가 시작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국관계의 시작이 왜국으로부터의 사신파견으로 시작되었고, 양국의 관계가 오래된 것처럼 서술하기 위하여 《삼국사기》 편찬자가 중국사서의 기사를 참고로 하여 조작한 기사다.<sup>2)</sup> 《일본서기》에서는 ‘신공황후의 삼한정벌’로 양국관계가 시작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나, 이 기사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주의를 요한다.

《삼국사기》·《일본서기》에 나오는 신라와 왜국과의 관계에 대한 기사 가운데서 다른 사료들과 비교 검토가 가능한 것은 4세기 후반 이후의 것들이다. 즉 〈七支刀銘〉·〈廣開土王陵碑〉 등의 금석문과 《宋書》·《隋書》·《新唐書》·《舊唐書》 등의 중국 사서가 존재하므로 이 자료들을 통해 역사상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칠지도명문〉·〈광개토왕릉비〉·《삼국사기》·《일본서기》 등에 의하면 奈

2) 탈해니사금 3년 5월조는 《삼국사기》 편찬자가 《후한서》에서 倭奴國의 낙랑입공 기사를 참고로 하여 만들었고, 아달라니사금 20년 5월조는 《삼국지》 왜인전의 기사를 참고로 하여 만든 기사로서 사실로 보기 어렵다(鈴木英夫, 〈“三國史記”の倭關係記事〉,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青木書店, 1996, 26쪽).

勿王 17년(372)에 왜국이 백제와 외교관계를 개시한 이후, 왜국과 백제는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협력체제를 유지하였다. 신라는 내물왕 11년 백제와 외교관계를 가졌으나, 같은 왕 22년과 27년에는 고구려의 권유로 前秦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37년에는 實聖을 인질로 고구려에 보내면서 고구려 진영에 가담하였다. 고구려의 廣開土王이 재위 6년(396)에 백제 수도를 공격하여 한수 이북의 백제땅을 빼앗자, 백제 아신왕은 재위 6년(397) 왜국에 태자 腆支를 파견하여 원병을 요청하였고, 왜국이 이에 응하여 고구려·신라에 대항하기 위해 백제·왜국의 군사협력이 이루어졌다. 백제·임나가야·왜의 연합군이 내물왕 44년 신라를 공격하자, 고구려는 광개토왕 10년 신라에 진군하여 왜군을 격퇴하고, 신라성 등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402년에 새로 즉위한 실성왕은 내물왕자 末斯欣을 왜국에 파견하여 관계개선을 꾀하였으나, 왜국은 미사흔을 억류하였고, 履中(리쑤)천황 5년(404)에는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의 대방지역에 침입하였다. 이후에도 왜국은 백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이중천황 6년 아신왕이 사망하자 왜국에 있던 전지가 귀국하여 즉위하였고, 전지왕대·비유왕대에 백제와 왜국은 사신을 교환하였다.<sup>3)</sup>

미사흔의 억류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5세기 초까지 왜국은 신라와 적대하고 있었는데, 실성왕 4년(405)·7년에 왜병이 신라 동변을 침범하자 신라는 실성왕 11년에 내물왕자 卜好를 고구려에 인질로 보내 관계를 강화하였고, 실성왕 14년에는 침입한 왜인을 격파하였다. 그 후 고구려의 도움으로 즉위한 눌지왕은 재위 2년(418)에 동생 미사흔을 도망시키고 8년에는 고구려와의 수호를 강화하였다.

### 3) 5세기 왜국과의 관계

《삼국사기》에 의하면 미사흔의 귀국 이후 눌지왕 15년(431)부터 智證王 원년(500)까지 12회(눌지왕 15년·24년·28년, 자비왕 2년(459)·5년·6년·19년·20년, 소지왕 4년(482)·8년·19년, 지증왕 원년)나 왜병이 신라를 침략하고 있다. 그리

3) 古川政司, <5世紀前半の百濟政權と倭>(《立明館文學》433·434, 1981), 66~67쪽.

나 다음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에 이 시기 신라와 왜국이 적대관계만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눌지왕 17년 신라가 백제와 화친관계를 맺었으므로, 백제의 동맹국 왜국과 신라의 관계도 개선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눌지왕 5년 이후 자비왕 21년(478)까지 왜국은 신라와 백제연안을 통과하는 항로를 통하여 10회나 송에 조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왜국의 대송외교는 백제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sup>4)</sup> 백제는 전지왕 12년(416)에 송의 책봉을 받은 후, 久爾辛王 원년(420)·5년, 비류왕 3년(429)·4년·14년·17년·24년, 蓋鹵王 3년(457)·4년·13년·17년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세기 말 이후 왜국과 군사동맹체제를 유지하던 백제는 대 중국외교를 통해 국내지배를 강화하려던 왜국조정에 對宋외교를 매개해 줌으로써 동맹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백제는 왜국의 신라침공을 막기 위해서 왜국이 신라 연안의 교통로를 이용하여 중국에 갈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신라측에 요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왜병의 빈번한 침입에 대처하기 위해, 신라는 백제의 요구를 받아들여, 눌지왕 17년에 백제와 화친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눌지왕 34년에 고구려 변장이 신라인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고구려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눌지왕 39년부터 신라는 백제와 군사적 동맹관계를 유지하였다. 신라는 눌지왕 39년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자 군대를 파견하여 백제를 도왔고, 자비왕 17년에는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백제 개로왕에게 원병을 보냈다. 소지왕 3년(481)에 신라는 고구려와 말갈의 공격을 백제·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막아내었으며, 같은 왕 5년에도 고구려의 공격을 백제와 함께 막아내었다. 신라는 소지왕 15년에 이벌찬 比智의 딸을 동성왕의 비로 보내 백제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였다. 소지왕 16년에는 고구려와 싸우다 포위된 신라군을 백제 동성왕이 군대를 보내 구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고구려의 공격으로 곤란에 빠진 백제를 신라가 구원하였다.

왜왕이 允恭(인교우)천황 27년(438)부터 백제·신라·임나·진한·마한 등 한

4) 山尾幸久, 《古代の日朝關係》(塙書房, 1989), 216쪽.

반도 남부 국가에 대한 군사권과 관련된 칭호를 인정해 주기를 송에 요구한 것은 왜왕이 한반도 남부지역 출신의 도래인을 통할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sup>5)</sup> 이 지역의 국가들과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그런데 이러한 칭호를 요청하도록 왜왕에게 권유하는 한편 송에게는 왜왕을 책봉해 주도록 요청한 나라는 송-백제-왜국으로 이어지는 군사동맹체제의 결성을 꾀하고 있었던 백제였을 가능성이 크다. 백제는 비유왕 24년(450) 송에 사신을 파견하여 왜국을 책봉해 주도록 권유하였고, 송은 文帝 28년(451)에 왜왕 濟를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將軍으로 책봉하였다. 왜왕 제는 允恭천황으로 추정되는데, 이 천황대에 신라와의 우호관계를 말해 주는 기사가 《일본서기》에 보이므로<sup>6)</sup> 왜국의 사신파견에 신라가 양해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5세기에 왜왕은 국내 지배체제의 구축을 위해 백제로부터 선진문물을 수입하면서, 한편으로 백제의 권유에 따라 송 중심의 책봉체제에도 편입하고자 하였다. 백제는 개로왕 7년(461)에는 왕의 동생 곤지를 왜국에 파견하여 군사동맹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sup>7)</sup> 그러나 개로왕 21년 한성의 함락과 개로왕의 敗死로 인한 백제의 위기와 479년의 송조의 멸망으로 인해 왜국의 雄略(유우라쿠)정권은 종래의 대외정책을 변경해야만 하였다. 웅락천황대에 지방호족의 반란이 집중되었다는 傳承은 5세기 후반 왜왕의 국내지배가 동요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 4) 6세기 전반 왜국과의 관계

남조와의 통교가 중단되고 난 후 왜국에서는 6세기 초 繼體(케이타이)천황이 즉위하여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다. 계체천황은 선진 문화·물산 등을

5) 이는 백제왕이 중국계 신하에게 출신 지역명을 인정한 태수호를 임시로 주어 이에 대해 남조의 승인을 요청하였던 것과 유사하다(李永植, 〈五世紀倭の五王の韓南部諸國名の稱號〉,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 吉川弘文館, 1993, 88~95쪽).

6) 《日本書紀》권 13, 允恭天皇 3년 정월 신유삭·8월, 同 42년 정월 을해삭 무자·11월.

7) 延敏洙, 〈5世紀後半 百濟와 倭國〉(《日本學》 13, 1994), 300쪽.

수용함으로써 왕권을 안정시키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백제와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백제 武寧王은 재위 13년(513)부터 대가야지역에 대한 진출을 피하면서 왜국을 백제측에 끌어들이기 위해 계체 조정에 오경박사를 파견하여 선진문물을 진하였다.

대가야는 백제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왜국과 교섭을 벌였으나 왜국의 친백제정책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522년 신라와의 通婚정책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신라도 가야지역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표출하였으므로 法興王 16년(529)경 양국관계는 끝나게 되었고, 나아가 신라는 같은 왕 14년에 왜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던 金官國과 曷己吞을 공격하였으므로, 安羅를 비롯한 가야의 국가들은 왜국에 원조를 요청하였다. 신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筑紫國造 磐井(이와이)의 반란으로 인해 왜국은 계체천황 22년(528)에야 近江毛野臣(오우미노케누노오미)을 안라에 파견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529년 金官加耶는 신라에게 침략당하였고 530년 안라에는 백제군이 진주하였다.

백제는 聖王대에 더욱 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성왕 16년(538)에는 왜국에 佛像과 經論을 보내고 22년에는 금관가야의 부흥을 명분으로 내세워 왜국의 군사력을 끌어들여 고구려와 신라에 대항하려 하였다. 왜국은 군대와 군사물자를 백제에 제공하는 대가로 선진문물의 전수를 백제측에 요구하였다. 그 결과 성왕 32년 백제는 五經博士·易博士·曆博士·醫博士·採藥師 등을 왜국에 파견하였고 왜국은 병사 1,000명과 말 100필, 배 40척을 백제에 보냈다. 그러나 그 해 성왕이 신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하면서 신라는 가야지역에서 우위를 확보하였고, 眞興王 23년(562)에는 대가야를 멸망시켰다.

##### 5) 6세기 후반 왜국과의 관계

6세기 전반의 적대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신라가 왜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교섭을 재개한 것은 가야 제국을 신라 왕의 지배하에 편입시키고 있던 560년대이다. 가야지역을 확보한 신라는 왜국의 정황을 살피고 왜국과의 교역을 개시하기 위해 眞興王 21년(560)·22년·23년에 사신을 파견하였으나, 왜국조



정의 친백제세력들의 반대로 양국관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sup>8)</sup> 진흥왕 25년 이후 신라는 서해항로를 통해 北齊에 사신을 파견하여 책봉을 받고, 陳과도 교섭을 시작하여 활발한 교섭을 벌여 대중국외교에서 고구려·백제를 능가하게 되었다.<sup>9)</sup> 가야의 신라편입으로 왜국과의 교섭로를 잃은 백제가 사신을 파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라와의 교섭이 실패함으로 해서 왜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선진문물을 수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이렇게 대외적인 교섭이 단절된 왜국에 영양왕 원년(570) 고구려에서 최초로 사신이 파견된 후 같은 왕 4년·5년에 사신이 계속 파견되었다.<sup>10)</sup> 그러나 적대국이었던 고구려의 국교수립 요구에 대해 거부하는 세력이 大和朝廷 내부에 있어 양국간의 국교는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였다.<sup>11)</sup> 그 대신 고구려의 국교 개시 요구를 계기로 왜국은 신라와의 관계개선을 꾀하였다. 欽明(킨메이) 천황 32년(571) 왜국은 신라측에 사신을 보내 왜국과 신라와의 교역 개시와 백제로 가는 교통로의 이용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외교교섭을 벌였다. 신라 진흥왕은 왜국이 고구려와 결합하는 것을 막고, 왜국과의 교역을 위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그러나 진흥왕 32년(571) 신라와 왜국의 관계가 개시된 이래, 왜국은 신라보다 백제에 더 많은 사신을 파견하고 있다. 즉 왜국은 신라와의 교섭재개 그 자체보다 신라의 양해를 얻어 백제와 교섭을 재개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sup>12)</sup> 敏達(비다츠)천황 4년(575)의 교섭으로 신라로부터 해상로를 양해받은 왜국은 민달천황 6년부터 백제에 사신을 파견하여 불교관계 문물을 수입하였다. 왜국과 백제와의 교류는 표면적으로는 불교문물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인 교류였으나, 정치·군사적인 것을 협의하기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왜국과 교류를 재개한 백제는 위덕왕 24년(577)~27년 신라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였던 것이다. 579년에 즉위한 眞平王은 왜국에 불상을 보내면서

8) 金恩淑, <6世紀後半 新羅와 倭國의 國交成立過程>(《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 論文集》 15, 1994), 197~203쪽.

9) 申滢植, <韓國古代의 西海交涉史>(《國史館論叢》 2, 國史編纂委員會, 1989), 23~24쪽.

10) 《日本書紀》권 19, 欽明天皇 31년 4월 갑신삭 을유 및 권 20, 敏達 2년 5월 병인삭 무진·3년 5월 경신삭 갑자.

11) 고구려는 그 후 595년에서야 다시 사신을 파견하였다.

12) 金恩淑, 앞의 글, 210~219쪽.

백제와의 통교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듯하다. 이에 대해 왜국조정에서는 敏達 천황 12년(583) 무력으로 백제와의 교통로를 확보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시행되지는 못하였고, 그 이듬해 왜국은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불교관계 문물교류를 위해 백제와 왜국의 교통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587년에는 왜국조정에서 蘇我馬子(소가노우마코)가 政敵 物部守屋(모노노베 노모리아)을 제거하고 白瀬部皇子(하츠세베노오오지; 崇峻(수우준)천황)를 즉위시켰다. 그 후 소아마자는 본격적으로 崇佛을 내세우고 氏寺 건립계획을 세웠는데, 백제는 위덕왕 35년(588) 佛舍利와 함께 승려·사원건축 기술자 등을 보내어 소아씨의 寺(法興寺)건립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였다. 승준천황 원년(588) 백제사신이 돌아갈 때에 소아마자는 善信尼 등을 유학승으로서 백제에 파견하였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신라와 백제는 580년 이후 601년까지 교섭도 없었으나, 또한 전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시기에 불교신자였던 신라와 백제 양국의 지배층은 승려의 왕래와 불교관계 문물의 전래에 대해서는 양해했던 것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라는 590년대에 왜국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여 성을 쌓고,<sup>13)</sup> 대수외교를 개시하였다.<sup>14)</sup>

왜국에서는 승준천황 5년 소아마자가 천황을 암살하고, 자신의 질녀 推古(수이코)女帝를 즉위시키고, 자신의 생질 聖德(쇼우토쿠)太子를 섭정 겸 황태자로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氏寺인 법흥사의 개창을 앞두고 소아마자는 백제와 고구려에 승려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백제는 이미 위덕왕 35년에 왜국에 불사리를 전한 적이 있는 승려 慧聰을 같은 왕 42년에 다시 파견하였다. 고구려는 영양왕 6년(595) 慧慈를 파견하여 이로써 고구려와 왜국의 국교가 열렸다.<sup>15)</sup> 혜충과 혜자는 법흥사에 거주하면서 성덕태자에게 유학과 불교를 가르쳐 큰 영향을 끼쳤다.

13) 《三國史記》권 4, 진평왕조에 의하면 신라는 591년 7월 남산성을 쌓았고 593년 7월에 명활성과 서형산성을 개축하는 등 왜국에 대비하고 있었다.

14) 대수외교를 담당하기 위한 領客府를 591년 설치하였고, 594년에는 수에 최초로 사신을 파견하여 上開府樂浪郡公新羅王으로 책봉되었다.

15) 坂元義種, 〈推古朝の外交—とくに隋との關係を中心に〉(《歴史と人物》100, 1979) 49~50쪽.

## 6) 대수관계의 개시와 왜국과의 관계

중국에서 남북조를 통일한 隋가 등장하면서 신라와 왜국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백제는 위덕왕 28년(581)에 수와 외교관계를 개시하여 왕이 수의 高祖로부터 上開府儀同三司帶方郡公으로 책봉받은 이후 惠王 원년(598)까지 8차에 걸쳐 사신을 파견하면서 수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신라도 眞平王 16년(594) 수로부터 책봉을 받아 백제와 신라가 모두 수를 중심으로 한 책봉질서 속에 들어가게 되자, 백제는 이러한 책봉체제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즉 백제는 위덕왕 44년에 왕족인 승려 阿佐를 왜국에 파견하였는데, 이는 왜국에게 대수외교의 개시를 권유하기 위한 사신이었을 가능성이 크다.<sup>16)</sup> 백제는 왜국이 수와 통교를 개시한다면, 수의 책봉을 받은 신라가 수에 조공하러 가는 왜국사신을 방해할 수 없을 것이고, 견수사가 백제를 통과할 때에 왜국과의 교섭도 가능하리라는 점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백제에서 아좌가 파견된 이후 왜국은 推古天皇 5년(597) 11월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법흥사의 완공과 대수외교를 개시하겠다는 뜻을 신라에 알렸다. 신라는 진평왕 20년(598) 4월 왜국사신이 귀국할 때에 까치를 보내고, 사신을 파견하여 협조의 뜻을 알렸다.

추고천황 8년에 왜국은 수에 최초로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이 때 왜국사신은 왜왕을 「天」이나 「日」과 동렬에 두고 중국 황제의 권위에 대항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 수의 책봉을 받지 않는 「不臣의 外夷」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sup>17)</sup> 이와 같이 왜국이 수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자세를 보인

16) 왜국이 수에 보낸 국서에 〈광개토왕릉비〉에 보이는 왕권 개념이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여, 왜국이 대수외교를 개시한 것은 고구려 승려 혜자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坂元義種, 위의 글, 49~50쪽 및 李成市, 〈高句麗と日隋外交〉, 《思想》 795, 1990, 31~32쪽). 그러나 고구려가 왜국에게 대수관계의 개시를 권유할만한 이유가 확실하지 않고, 왜국이 국가적인 교섭을 개시한 지 얼마 안되는 고구려의 권유를 받아들여 대외정책을 결정하였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오히려 오랫동안 외교관계를 유지하던 백제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17) 石上英一, 〈古代東アジア地域と日本〉(《日本の社會史》 1, 岩波書店, 1988), 83쪽.

것은 왜국에게 대수외교를 권유한 백제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왜국이 수 중심의 책봉질서에 포함되게 된다면, 왜국의 대외정책은 수의 영향권하에 놓이게 되므로 백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든다. 따라서 백제는 왜국의 자존의식을 자극하여 왜국이 수의 책봉을 받지 않도록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서기》에서는 왜국이 수에 사신을 파견한 600년대에 신라와 왜국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sup>18)</sup> 왜국은 신라 연안항로를 이용하여 수에 사신을 파견하고 있었고, 신라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음을 말해 주는 증거도 없다.

다만 적대국인 백제·고구려가 왜국에 왕래하는 것에 대해 신라가 진평왕 24년(602) 이후 어느 정도 제한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다.<sup>19)</sup> 고구려는 직접 왜국의 越지방으로 항해하는 항로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신라 연안을 통과하여야 하는 백제는 왜국에 왕래하기가 어려웠다. 백제가 무왕 3년(602)의 觀勒 이후 외교사절로 승려만을 왜국에 파견한 것은 당시 승려가 최고지식인이었던 점 이외에 만약 신라측에 잡혔을 경우에 승려의 신분인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고구려는 영양왕 11년(600) 수에 조공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중국 북방의 대국 돌궐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고구려를 응징해야 한다는 소리가 隋에서 높아지자, 고구려는 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고구려는 영양왕 13년에 승려 僧隆·雲聰을 왜국에 파견하였고, 영양왕 16년에는 불상 제조용 황금 300냥을 추고천황에게 보냈다.<sup>20)</sup>

18) 《日本書紀》권 22, 推古紀에 의하면 600년~603년에 왜국의 신라 침공계획이 있었으나 실행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는 백제가 23년만에 신라를 공격한 602년의 전쟁이 왜국과의 협의에 의한 것인 것 같이 서술하여 양국이 오랫동안 군사동맹체제를 유지한 것처럼 기록을 남기고자 백제계 도래인들이 만들어 놓은 조작기사다.

19) 신라는 600년~610년대에 백제·고구려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즉 602년 백제가 23년 만에 신라를 공격한 이후 605년·611년·616년·618년에 양국은 전쟁을 하고 있고, 603년에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한 이후 603년·608년에 양국은 전쟁을 하였다. 621년 이후 신라사신들은 고구려·백제의 신라공격을 중지시켜 줄 것을 당에 호소하고 있다.

20) 《日本書紀》권 22, 推古天皇 10년 윤10월 을해삭 기축·13년 4월 신유삭.

607년 수 양제가 고구려 원정을 결정하자, 이 원정계획을 알게 된 백제는 일단 수측의 고구려 원정에 함께 참가하기를 요청하였다. 신라는 진평왕 30년(608) 승려 圓光에게 수의 군대를 요청하는 乞師表를 짓도록 하였다. 한편 왜국은 추고천황 15년(607) 小野妹子(오노노이모코)를 수에 파견하여 ‘해뜨는 곳의 천자가 글을 해지는 곳의 천자에게 보낸다’는 내용의 국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왜국의 태도에 수 양제는 불쾌감을 나타내었으나, 고구려 공격을 위해서는 백제·신라·왜국을 영향권 안에 넣어 두어야 하였기 때문에 소야매자의 귀국 시에 裴世清을 함께 파견하였다. 소야매자의 파견은 수의 고구려 침공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백제와 고구려가 왜국조정에 권고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소야매자는 귀국 도중 수 양제가 보낸 답서를 백제에게 빼앗겨 분실했다고 보고하였으나, 사실은 답서의 내용이 왜국을 하위에 놓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소야매자가 파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sup>21)</sup> 추고천황 16년 9월에도 왜국은 수의 대고구려전 준비상황을 살피기 위해 소야매자를 다시 수에 파견하였다.

고구려는 영양왕 21년(610)에도 승려 曇徴과 法定을 보내 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고, 신라는 진평왕 32년 가야출신자를 포함한 사신을 왜국에 파견하여 왜국의 정세를 살피고자 하였다. 왜국은 12년만에 파견된 신라사신을 각별히 접대하여 신라와의 우호관계도 유지하고자 하였다. 신라는 진평왕 33년 초에는 수에 군사를 청하는 사신을 파견하여 양제의 허락을 얻어내고, 8월에는 왜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신라의 청병외교가 성공한 것을 알렸다.

수는 大業 8년(612) 113만의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공격을 단행하였고, 백제는 수를 돕겠다고 약속하고는 실제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추고천황 22년에도 왜국은 수의 정세를 살피기 위한 사신을 파견하였으나, 당시 제3차 고구려출병에 대한 반발로 중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왜국사신은 백제까지만 가서 머무르다가 그 다음해 9월 백제 사신들과 함께 귀국하였다.<sup>22)</sup>

추고조정의 4차에 걸친 견수사 파견은 백제와 고구려의 의향을 반영하여 수의 대고구려전 준비를 살피기 위한 것이었다. 大業 8년(612)부터 3년간 3회

21) 西嶋定生, 《邪馬臺國と倭國》(吉川弘文館, 1994), 213쪽.

22) 西嶋定生, 〈七世紀の東アジアと日本〉(《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5, 學生社, 1981), 21쪽.

에 걸쳐 실시된 양제의 고구려원정은 수의 대패로 끝나고, 수왕조는 반란으로 인해 618년 멸망하였다. 이로써 신라의 대수 청병외교는 실패한 셈인데, 수의 고구려 출병이 실패로 끝난 후 진평왕 38년(616) 신라는 왜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불상을 보내어 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가 618년 수를 물리친 사실을 알리자 왜국조정은 고구려의 군사력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sup>23)</sup>

## 7) 대당관계의 개시와 왜국과의 관계

618년 수가 멸망하고 당이 건국되자, 신라는 진평왕 43년 7월 당에 사신을 파견하고, 왜국에도 사신을 파견하여 국서를 보내 당과 왜국과의 교류를 중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라는 진평왕 45년 7월에는 불상과 金塔·舍利·幡·旗를 보내면서, 수대에 중국에 갔다가 귀국하던 왜국의 학문승 惠齋(에사이)·惠光(에코우)과 의사 惠日(에니치)·福因(후쿠인) 등을 보내 주었다.<sup>24)</sup> 중국에 갔다 돌아오는 왜국의 학문승과 의사를 신라배에 태워 귀국시킨 것은 이후 신라와 왜국의 관계개선에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혜일 등은 법식이 완비된 당과 왕래할 것을 왜국조정에 주청하였는데, 신라를 통한 당과의 국교개시에 대해 왜국조정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당과의 국교개시는 백제에서 무왕 31년(630) 사신이 파견된 이후에 이루어졌다. 신라는 진평왕 45년의 교섭 실패 이후 진평왕 53년까지 왜국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다.<sup>25)</sup> 백제·고구려와 대립하고 있던 신라는 대당외교를 강화하여, 진평왕 47년에는 고구려가 조공로를 막고 있다고 호소하였고, 진평왕 49년에는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기 위한 군사를 일으키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23) 山尾幸久, 〈遣唐使〉(《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6, 學生社, 1982), 205쪽.

24) 《日本書紀》권 22, 推古天皇 31년 7월.

25) 《日本書紀》에서는 그 이유를 623년 왜국이 신라를 침공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것도 백제와 왜국의 군사적 동맹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백제계 사관들이 조작한 기사다. 즉 《三國史記》에 의하면 신라는 623년부터 628년까지 거의 매년 백제의 침공을 받는데, 백제계 사관들은 이러한 백제의 군사행동에 왜국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처럼 기록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백제도 무왕 27년에 사신을 당에 파견하여 고구려가 조공로를 막고 있다고 하면서 당의 동향을 살폈다. 당 고조는 朱子奢를 고구려·백제·신라에 파견하여 삼국이 서로 화친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대해 629년 고구려와 백제 국왕은 당에 국서를 보내 사죄하였다.<sup>26)</sup> 그러나 당의 조정에 의한 삼국의 평화유지에는 한계가 있어서, 백제는 무왕 29년에 신라의 가잠성을 공격하였고, 신라 또한 진평왕 51년 고구려를 공격하여 娘臂城을 함락시켰다.

고구려는 영류왕 8년(625)에 승려 惠灌을 왜국에 보냈다. 왜국의 推古조정에서 승정으로 임명된 海관은 法興寺에서 삼론종을 유포하여 일본 삼론종의 비조가 되었다.<sup>27)</sup> 무왕 16년(615) 사신을 왜국사신과 동행시켜 파견한 적이 있었던 백제는 15년 만인 무왕 31년 3월 고구려와 함께 왜국에 사신을 파견하였다.<sup>28)</sup> 이 고구려와 백제의 사신은 왜국에 대당외교를 권고하기 위한 사신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舒明(조메이)천황 2년(630) 8월 왜국은 당에 최초로 견당사를 파견하였는데, 고구려와 백제는 왜국의 대당외교를 주선함으로써 신라의 천당외교에 대항하고자 하였다.<sup>29)</sup> 또한 백제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국의 견당사의 왕래를 통해 양국간의 연락수단도 확보할 수 있었다.

왜국 최초의 견당사는 견수사였던 犬上君御田耜(이누카미키미노미타스키)와 견수유학생이었던 海日 등 중국에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당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신라와 백제연안을 통해 가는 북로였으므로 견당사의 파견에는 신라의 협조도 필요하였다. 그 교섭을 위해 왜국은 추고천황 31년(623) 신라 송사의 도움으로 귀국한 적이 있는 海일을 견당사에 포함시킨 것이었다.

백제·고구려와 적대관계에 있던 신라는 당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 속에 왜국을 편입시키므로써 왜국과 백제와의 긴밀한 관계를 약화시키고자 왜국의 견당사 파견에 협조하였다. 한편 고구려와 군사적 긴장상태에 있었던 당

26) 山尾幸久, 앞의 책, 368쪽.

27) 田村圓澄, 《日本佛教史》4(法藏館, 1983), 198쪽.

28) 신라와 적대하고 있던 백제가 신라 연안을 이용하기는 어려웠으며, 고구려 사신과 동행하고 있으므로 고구려 항로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9) 山尾幸久, 앞의 글, 205쪽.

도 왜국을 반고구려 진영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였다.<sup>30)</sup> 태종 6년(632) 왜국사신이 귀국할 때에 당은 新州刺史 高表仁을 왜국에 파견하면서 당에 유학하고 있던 왜국의 학문승 靈雲(료운)·뫼(민)·勝鳥養(수구리노토리카이) 등을 귀국시켰는데, 신라는 이들에게 送使를 부쳐서 보내 주었다.<sup>31)</sup> 당은 왜국에게 당에 臣從할 것과<sup>32)</sup> 신라와 우호관계를 가지도록 권고하였을 것으로<sup>33)</sup> 추측되는데, 그러나 왜국조정의 반신라세력의 반발로 양국간의 외교교섭은 원할히 추진되지 않았다.<sup>34)</sup>

왜국에 대한 신라의 외교공세에 대항하여 백제 무왕은 재위 32년(631)에 아들 豐璋을 파견하여<sup>35)</sup> 왜국과 동맹관계를 맺었는데, 풍장은 백제멸망 때까지 왜국조정에 손님자격으로 체재하였다. 서명천황은 재위 11년(639)에 百濟川 근처에 宮을 짓고, 百濟大寺를 건립하여 친백제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신라의 왜국에 대한 접근정책은 계속되어 선덕여왕 8년(639)과 9년에도 송사를 파견하여 왜국의 遣唐 학문승과 학생들을 왜국에 보내 주었다. 무왕 41년에는 백제도 왜국의 건당유학생이 귀국할 때에 送使를 파견하여, 백제와 신라의 송사가 함께 왜국으로 갔었다.

640년에 송사로 왜국에 간 신라사신은 건당유학생 등 친신라파와의 제휴를 강화하기 위해 선덕여왕 11년 3월까지 왜국에 체류하였다. 신라는 또한 선덕여왕 11년 3월에는 皇極(코우교쿠)천황의 즉위를 축하하고 서명천황의 상을 애도하는 사신을 삼국 중에서 최초로 파견하는 등 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선덕여왕 11년 7월 의자왕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大耶城을 비롯한 서쪽의 40여 성을 빼앗긴 신라는 그 해 겨울 고구려와 동맹관계를 맺고자 하였으나,

30) 鈴木英夫, 〈7世紀中葉における新羅の對倭外交〉(앞의 책), 304쪽.

31) 田村圓澄, 〈新羅送使考〉(《朝鮮學報》 90, 1979), 69~70쪽.

32) 西嶋定生, 앞의 책, 224~225쪽.

33) 山尾幸久, 앞의 글, 205~206쪽.

34) 鈴木英夫, 앞의 글, 304쪽.

35) 鄭孝雲, 〈7世紀代의 韓日관계의 研究〉 上(《考古歷史學誌》 5·6, 1990), 151~154쪽.

金壽泰, 〈百濟義慈王代의 太子冊封〉(《百濟研究》 23, 1992), 147~151쪽.

盧重國, 〈7世紀 百濟와 倭와의 關係〉(《國史館論叢》 52, 1994), 165쪽.



고구려가 죽령 서북 땅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양국간의 교섭은 결렬되었다. 643년 11월 백제와 고구려는 동맹관계를 맺고 신라의 党項城을 빼앗아 입당로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대야성 등을 점령하여서 왜국으로 가는 항로를 확보한 백제 의자왕은 조카 翹岐를 왜국에 「質」로 파견하여 양국관계를 보장하는 한편 교기를 왕권의 핵심부로부터 추방하고자 하였다.<sup>36)</sup> 백제로부터 귀국한 사신의 보고로 의자왕의 의도를 알게 된 황극조정은 오히려 교기를 환대하는 한편 백제측에게는 새로운 「質」을 요구하였으므로 백제는 砂宅智積의 아들 長福을 파견하였다.<sup>37)</sup> 의자왕 4년(644)에도 백제는 사신을 파견하여 가야지역의 산물을 보냈으나, 왜국조정은 백제의 선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여 돌려보내는 등 양국관계는 원만하지 못하였다.<sup>38)</sup>

한편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협공에 대비하여 선덕여왕 12년 당에 원군을 요청하는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에 대해 당은 신라에 세 가지 방책을 제시하는 한편, 고구려와 백제에 신라를 공격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다. 신라에서는 당이 요구한 여왕폐위 문제를 중심으로 여왕폐위파와 지지파가 대립하게 되었으나, 여왕 지지파 김유신은 선덕여왕 13년 9월 백제를 공격하여 실지를 회복하였다. 또한 신라 공격중지 명령에 대해 고구려가 失地반환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이를 무시하였으므로 당은 태종 19년(645) 5월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이 때에 신라는 군사 3만 명을 동원하여 당을 도왔으나, 그 틈에 백제에게 7성을 탈취당하기도 하였다.

당의 고구려 공격이 시작된 645년에 왜국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나 6세기 중엽 이후 4대에 걸쳐 권력을 휘두르던 蘇我 本宗家が 몰락하였다. 이를 大化改新(타이카노카이신)이라고 한다. 쿠데타 직후 새로 성립한 改新정부는 왜국에 와 있던 고구려 사신에게는 양국간의 우호관계의 강화를 요구하였고, 백제사신에게는 신라로부터 김해지역을 확보하고 교역물을 확실히 보내도록

36) 鈴木靖民, 〈皇極期朝鮮關係記事の基礎的考察〉(《國史學》 82, 1970), 24쪽.

盧重國, 앞의 글, 169~171쪽.

37) 《日本書紀》 권 24, 皇極 원년 7월 갑인삭 을해·8월 병신.

38) 盧重國, 앞의 글, 174~176쪽.

요구하였다.<sup>39)</sup> 또한 개신정부는 대화 2년(646)에는 신라에 高向玄理(타카무쿠노쿠로마로)를 파견하여 양국관계를 보장할 수 있는 인물(質)을 파견할 것을 요구하면서 신라와 외교관계도 강화하려 하였다.<sup>40)</sup>

당시 신라에서는 이찬 毗曇이 상대등으로 임명되는 등 여왕폐위파가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여왕지지와 김춘추는 고향현리로부터 왜국의 쿠데타에 대해 듣고, 왜국의 새로운 정부와 교섭을 통해 양국관계를 개선해 보고자 647년 왜국으로 건너갔다.<sup>41)</sup> 김춘추의 왜국 체재 중에 신라에서는 비담의 난이 일어나 선덕여왕이 사망하는 위기가 있었으나, 김유신이 반란을 진압하고 진덕여왕이 즉위하여 여왕지지와 세력은 강화되었다. 김춘추는 왜국과의 관계개선에 성공하고 귀국하여 진덕여왕을 보좌하게 되었다. 김춘추는 진덕여왕 2년(648)부터는 대당 청병외교를 추진하면서, 중국 의관의 착용, 당의 연호 사용, 하정의례 시작 등 친당정책을 강화해 나갔다.

당은 태종 19년(645) 이후 21년·22년 모두 3차에 걸쳐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649년 태종은 사망한다. 신라는 진덕여왕 원년·2년 계속되는 백제군대의 침공을 격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는 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진덕여왕 2년에는 왜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왜국의 국서를 받아다가 당에 전달해 주었다.<sup>42)</sup> 또한 진덕여왕 3년에는 선덕여왕 13년(644)에 당에 청병사로 파견되어<sup>43)</sup> 당의 고구려원정 때 길 안내를 한 적이 있던<sup>44)</sup> 金多遜을 왜국에 파견하여 당·신라·왜국으로 이어지는 군사동맹을 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大化 4년에 고구려·백제·신라에 모두 학문승을 파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신정부는 친백제적인 외교정책을 수정하여 삼국에 대한 균형외교를 유지하고자 하였을 뿐 신라와의 군사동맹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39) 《日本書紀》권 25, 孝德天皇 大化 원년 7월 정묘삭 무진.

40) 《日本書紀》권 25, 孝德天皇 大化 2년 9월.

41) 朱甫墩, 〈金春秋의 外交活動과 新羅內政〉(《韓國學論集》 20, 1993), 17~25쪽.

42) 《舊唐書》권 199 上, 列傳 149 上, 東夷 倭國.

43) 朱甫墩, 〈“文館詞林”에 보이는 韓國古代史 관련 外交文書〉(《慶北史學》 15, 1992), 162·166쪽.

44) 延敏洙, 〈日本書紀의 ‘任那의 調’關係記事의 檢討〉(《九州史學》 105, 1992), 16쪽.

## 8) 당과의 군사동맹 강요와 왜국의 동향

신라는 진덕여왕 4년(650)과 5년에도 왜국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5년의 사신은 당의 의복을 입고 가서 왜국에게 당과의 동맹을 강요하여, 왜국 조정내의 친백제파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650년대에 백제는 의자왕 11년(651)·12년·13년·14년 계속 왜국에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특히 13년의 경우는 의자왕이 많은 선물을 보내어 양국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sup>45)</sup> 신라의 동맹강요와 의자왕의 적극외교를 계기로 하여, 왜국조정내에서 점차 친백제파가 점차 발언권을 확대하던 白雉(하쿠치) 4년(653)과 5년에 왜국은 당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5년에 파견된 高向玄理가 당에서 객사하는 바람에 왜국조정의 친신라파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었다.

왜국이 신라와의 군사동맹을 거부하긴 하였어도 양국간의 교섭은 658년경까지 계속되었다. 신라는 654년 김춘추가 무열왕으로 즉위한 후에도 왜국의 견당사가 귀국할 때에 송사를 부쳐 보냈다. 또한 무열왕 2년(655)에 고구려·백제·말갈 군대의 공격을 받자, 사신을 당에 파견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한편 級飡 彌武를 비롯한 12명의 才伎를 왜국에 파견하였다.<sup>46)</sup> 왜국은 齊明(사이메이)천황 원년(655) 8월에는 河邊臣麻呂(카와베노오미마로)가 귀국할 때에 가지고 온 당 고종의 새서를 통해 신라에 원군을 파견하라는 당의 요구를 받기도 하였으나, 이에 왜국은 응하지 않았다. 한편 백제·고구려의 왜국에 대한 외교공세는 더욱 강화되었다. 백제는 의자왕 15년 달솔 餘宜受를 수석으로 하는 100여 명의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하였고 고구려는 보장왕 15년(656) 81명의 사절단을 파견하였다.<sup>47)</sup>

이에 대해 왜국은 齊明天皇 2년(656)에 고구려와 백제에 사신을 파견하여

45) 《三國史記》권 28, 百濟本記 6, 義慈王 13년 8월. 653년경 의자왕이 일본의 실력자 藤原鎌足에게 보낸 선물 목록이 《東大寺獻物帳》에 보인다(胡口靖夫, 〈大化改新前後の日本と百濟〉, 《古代文化》 33-4, 1981, 17~18쪽).

46) 《日本書紀》권 26, 齊明 원년 是歲.

47) 《日本書紀》권 26, 齊明 원년 是歲·2년 8월 계사삭 경자.

고구려·백제와의 관계를 강화하였고, 皇極天皇 원년(642) 이후 백제에 장기 체류하던 難波吉士國勝(나니와노키시쿠니카츠) 등을 귀국시켜 한반도의 정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신라는 무열왕 4년(657)에 沙門 智達(치다치) 등을 신라사신과 함께 당에 보내 달라는 왜국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무열왕 5년에는 사문 智通(치츠)과 지달이 신라선을 이용하여 당에 가도록 배려하여 왜국과의 관계악화를 막고자 하였다.<sup>48)</sup>

당 태종의 사후 즉위한 당 고종이 신라의 청병외교에 본격적으로 응한 것은 顯慶 3년(658) 6월 이후로, 이 때부터 당은 요동 북부의 고구려영토를 공격하는 한편 현경 5년 3월에는 13만의 대군을 백제에 파견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당의 고구려 공격이 계속되던 현경 4년 7월에 왜국은 백제와 남중국을 연결하는 항로를 통해 대규모 사신단을 파견하여 당의 동정을 살피고자 하였으나, 당 고종은 백제공격 계획이 사전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이들을 억류하였다.

의자왕 20년(660)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백제는 멸망하였다. 백제가 멸망한 후 백제 유민들은 왜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풍장을 돌려보내 줄 것과 원병을 보내 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대해 제명조정은 멸망한 백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신라와 당을 상대로 하여 전쟁을 감행하기로 결정하였고, 663년 대규모의 군대와 군비가 투입된 白江口전투에서 왜국과 백제유민의 연합군은 나당연합군에게 패하고 말았다.

〈金恩淑〉

48) 《日本書紀》권 26, 齊明天皇 3년 是歲·4년 7월.